전남대 로스쿨 교원 확보 비상

겸업금지 규정 영향 변호사 출신 교수 그만두기도

다른 교수들도 좋은 조건 찾아 '이직 도미노' 우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유치에 나선 전남대에 비상이 걸렸다.

로스쿨 유치를 위해 최근 2~3년 동안 전직 판·검사 7명 등 16명의 교수를 채용해 32명으로 늘리는 등 교수확보에 총력을 기울였으나, 오는 10월 로스쿨 인가신청을 불과 한 달여 앞두고 전체 교원의 10%가량이 이직하거나 이직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서울대가 30일 다른 대학에서 8명의 교수를 영입한 것을 계기로 더 좋은 조건을 찾아나선 교수들의 '이직 도미노'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보여 교수들의 추가 이직까지도 우려되고 있다.

전남대에 따르면 변호사 출신인 A교수가 최근 사표를 내고 변호사로 복귀해 인천의 한 로펌(법률회사) 대표 변호사를 맡았다. A교수의 이직 이유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변호사의 교수 겸업금지가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학교 측은 보고 있다.

또 B교수가 서울의 한 사립대학으로 옮기기 위해 사표를 제출했으며, C교수도 다른 대학으로의 이직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대 관계자는 "오는 9월 초 5명의 교수를 충원해 로스쿨 유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오는 2011년까지 교수진을 50명으로 늘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대촌中 잔디구장 개방 광주시 남구 대촌중학교(교장 한정섭) 운동장이 야간 조명시설까지 갖춘 인조잔디 축구장으로 말끔하게 단장돼 학생들은 물론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과 광주시가 5억2천만원을 지원해 완성된 축구장은 매일밤 축구 동호인들에게 소정의 전기료만을 받고 개방된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SUV는 '달리는 흉기'?

정면 충돌땐 승용차 운전자 사망 위험성 74% 높아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준중형 승용차가 정면 충돌할 경우 승용차 운전자의 사망 위험성이 SUV 운전자보다 74%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개발원은 30일 부설 자동차기술연구소를 통해 이종차량간 충돌 실험을 실시,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이번 실험은 시속 50㎞의 속도로 마주보고 달려오는 차량의 앞부분이 절반씩 서로 엇갈려 충돌하도록 하는 EEVC(유럽차량실험위원회) 기준에 의해 진행됐다.

실험 결과에 따르면 준중형 승용차인 아반테XD와 SUV인 렉스턴이 정면 충돌할 경우 IIHS(미국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 안전등급이 아반테 4, 렉스턴 1로 나타났다.

IIHS 안전등급 4등급은 1등급에 비해 74%, 2등급과 3등급은 1등급에 비해 30% 가량 사망 위험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운전석이 엔진 앞쪽에 위치한 전방조정형 소형 화물차 포터와 중형 승용차 토스카간 충돌 실험에서는 4대 2로 포터 운전자의 사망 위험성이 토스카 운전자보다 훨씬 높았다.

/연합뉴스

광주 일부 학교 눈병 주의보

광주시교육청은 30일 광주 모 고교 학생 18명이 눈병 증상을 보여 병원 치료와 함께 격리수업 중이라고 밝혔다.

눈병이 유행성 각결막염인지 일명 아폴로 눈병으로 불리는 급성 출혈 결막염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시교육청은 덧붙였다.

시교육청은 앞서 29일 다른 지역에서 눈병 학생들이 확산됨에 따라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내 학생들이 ▲흐르는 수돗물로 손을 자주 씻고 ▲수건이나 개인 소지품을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하지 말 것 등 눈병 예방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눈병이 발생한 학생은 격리해 수업시키고 병원 치료를 받도록 학교 측에 권고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광주의 경우 아직 눈병 집단 발병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하지만 개학을 맞아 눈병이 확산될 가능성이 큰 만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광주지하철요금 내일부터 인상

광주지하철 요금이 오는 9월 1일부터 100원 인상된다.

광주도시철도공사는 "지하철 요금이 성인(중·고·대생 포함) 보통권의 경우 900원에서 1천원으로 오른다"고 30일 밝혔다.

교통카드(전자화폐)의 경우 810원에서 950원으로 오르고, 중·고·대생은 할인율이 적용되어 800원을 받는다. 어린이 요금은 400원으로 동결된다.〈표〉

인상 전에 구입한 1회용 승차권은 운임차액을 매표소에 지불하고, 새로운 승차권으로 교환해 사용하면 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광주지하철 요금 인상내역

구분	현행		인상	
	1회권	교통카드	1회권	교통카드
일반인	900원	810원	1,000원	950원
중고대상(청소년포함)	900원	720원	1,000원	800원
초등생	400원	400원	400원	400원

광주 '동운고가교' 1일부터 교통통제

광주시 북구 운암동 '동운고가교'에 대한 보수·보강 공사로 이 일대 교통이 부분 혹은 전면 통제된다.

광주시는 30일 "교통안전 진단결과 D급 판정을 받은 동운고가교에 대한 보수·보강공사를 9월1일부터 9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이에 따라 3~9일 엿새 동안 밤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동운고가교를 전면 통제한다. 주간에도 일부 차선을 막고 공사를 진행한다. 지난 1973년 세워진 동운고가교(830m)는 지난 2004년 정밀안전 진단에서 슬래브 내하력 부족으로 D급 판정을 받아 15t이상 차량 통행을 금지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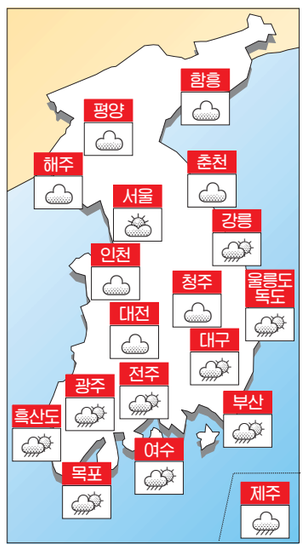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비 온 뒤 선선함

흐리고 비가 온 후 점차 개겠다.

8월 31일 (음 7월 19일) ◇전국날씨

광 주	비 후 갬	22~26℃
목 포	비 후 갬	23~28℃
여 수	비 후 갬	22~25℃
완 도	비 후 갬	22~26℃
구 례	비 후 갬	22~27℃
해 남	비 후 갬	23~27℃
장 흥	비 후 갬	22~27℃
고 흥	비 후 갬	22~26℃
순 천	비 후 갬	21~26℃
영 광	비 후 갬	23~27℃
진 도	비 후 갬	22~28℃
전 주	비 후 갬	22~27℃
남 원	비 후 갬	21~26℃
흑산도	비 후 갬	23~27℃



서해남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1.0~1.5m
먼바다=북동~남동풍 파고 1.0~2.0m
남해서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1.0~1.5m
먼바다=북동~남동풍 파고 1.0~2.5m

목 포 밀물 03:54 16:13 썰물 09:10 21:28
여 수 밀물 10:55 23:11 썰물 04:38 16:53

▲해뜸 06:04 ▲해짐 19:02 ▲달뜸 20:30 ▲달짐 08:57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1(토)	2(일)	3(월)	4(화)	5(수)	6(목)
날 씨						
최저/최고	22/24	22/28	23/28	22/29	23/29	22/29

전남도교육청 혁신지수 전국 최상위

전남도교육청이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과 180개 지역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7년 상반기 교육청 혁신지수 진단결과' 전국 최상위 그룹으로 올라섰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 29일 발표한 혁신진단은 혁신비전과 전략, 혁신리더십, 구성원의 혁신역량, 관리제도화, 혁신과제 실행도 등 5개영역 220여개 항목을 대상으로 지난 7월 실시됐다. 전남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에 이어 2회 연속 최고 수준인 5단계를 유지해 전국 최고 혁신수준에 올랐고, 목포· 나주·곡성· 구례·보성·영암·무안·완도·진도· 강진·해남·영광 등 12개 지역교육청도 5단계에 새롭게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소방차 오인 출동땐 과태료 20만원 부과

광주시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 등을 할 때 미리 신고하지 않아 소방차가 오인출동할 경우, 2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광주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화재예방 조례안을 만들어 다음달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시의회에 상정한 뒤 1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